

웰에이징 전문가의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인식 연구

송현동¹, 김두리², 장경희³, 김광환^{4*}

¹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²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³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Well-Aging Experts' Funeral Culture Business Education Operation

Hyeon-Dong Song¹, Doo-Ree Kim², Kyung-Hee Chang³, Kwang-Hwan Kim^{4*}

¹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Well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사업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국갤럽에 의해 웰다잉 교육기관 및 강사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4명이며,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관련 항목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장례문화 교육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항목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죽음준비 교육'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례절차 및 행정'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정도에 대한 IPA분석을 진행한 결과 '죽음준비 교육', '장례문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인의 죽음관'의 중요도와 지식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추후 장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well-aging education model. This was achieved by confirming the importance and level of knowledge of well-aging experts for each item required for education and operation in the field of funeral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by Gallup Korea, targeting well-dying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ructors, and researchers. Totally, 44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items related to the education operation of the funeral culture project. IPA analysis was us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level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uneral culture edu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The results of the survey examined the importance of each item in funeral cultural project education: 'death preparation education' had the highest importance, whereas 'funeral procedures and administration' were the least important factors. IPA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importance and knowledge level of funeral culture project education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factors: 'Death Preparation Education', 'Purpose and Necessity of Funeral Culture Project', and 'Korean Death Pavilion'. All factors ranked high in importance and knowledge. Since this study enrolled well-aging professionals,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funeral culture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Keywords : Well-aging Education, Funeral Culture, Degree of Execution, Importance, Level of Knowledge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April 10, 2023

Revised May 3,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한국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해서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예상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생명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로 지난 2000년 76세에 비해 7.6년 증가했지만,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노인 부양문제, 삶의 질,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

한국사회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었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웰빙과 웰다잉을 넘어서 웰에이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웰에이징 교육모델에 대한 필요성[2]이 제기되고 있다. 웰 에이징(Well-aging)이란 “행복한 인생을 위해 생애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경제자립을 준비하고 실현해가는 과정”[3]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웰에이징과 관련한 웰다잉 실천방법의 하나로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과 시대에 맞는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4].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계에서는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정정도 진행되었다[5,6].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의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및 실행과 관련한 웰에이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웰에이징 교육의 마지막 과정으로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민간단체에서 ‘웰에이징 지도사’, ‘웰다잉·웰에이징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죽음교육, 웰다잉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복지관, 민간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인문사회분야에만 치중되어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웰에

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사업에 대한 교육운영의 중요성과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웰다잉 임상실무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건 의료, 상담심리학, 인문학 분야 등 ‘장례문화사업’ 관련 웰에이징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갤럽에 의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대상에 따른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웰에이징 전문가는 웰다잉 및 웰에이징 교육강사, 교육담당기관자, 연구소, 학술연구자들이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 5문항,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정도 8문항, 장례문화사업의 효과적 교육방법, 적합한 교육장소, 적정교육시간, 교수학습활동 구성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소 연구진과 한국갤럽의 자문과 점검을 통해 구성되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설문문항은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계획수립,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강사교육,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지도·관리,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홍보에 대한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설문 문항은 장례문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죽음교육, 한국

인의 죽음관, 한국의 장례문화, 장례절차 및 행정, 상차치유, 호스피스·완화의료, 웰다잉 문화운동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특성과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관련 항목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장례문화 교육운영 관련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IPA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실행을 위한 실행도, 지식정도 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점, 그리고 개선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갤럽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IPA 설문을 5점 척도(매우 낮음=①, 낮음=②, 보통=③, 높음=④, 매우 높음=⑤)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후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수식 (1)을 사용, 100점으로 변환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IPA 응답값은 매우 낮음=0점, 낮음=25점, 보통=50점, 높음=75점, 매우 높음=100점이었다.

3. 분석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9명(65.9%), 여자 15명(34.1%)이며, 연령은 50-60대가 30명(68.2%),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이 25명(56.8%), 이 중 20년 이상은 8명(18.2%)이었다. 학력은 석·박사 졸업이 28명(63.5%)으로 고학력들의 비중이 높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4)

Categories	N	%
Gender		
Male	(29)	65.9
Female	(15)	34.1
Age group		
less than 40 years old	(7)	15.9
40-49 years old	(7)	15.9
50-59 years old	(15)	34.1
60+	(15)	34.1

Age by gender		
Male		
less than 40 years old	(4)	9.1
40-49 years old	(5)	11.4
50-59 years old	(8)	18.2
60+	(12)	27.3
Female		
less than 40 years old	(3)	6.8
40-49 years old	(2)	4.5
50-59 years old	(7)	15.9
60+	(3)	6.8
Highest level of education		
Associate's degree	(5)	11.4
Bachelor's degree	(11)	25.0
Master's degree	(9)	20.5
Doctoral degree	(19)	43.2

3.2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중요도 및 실행도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선택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계획 수립(4.3점, 100점 평균 82.4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3.8점, 100점 평균 71.0점)'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로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선택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강사 교육(3.7점, 100점 평균 68.2점)'의 실행도가 가장 높고, '홍보(3.4점, 100점 평균 60.8점)'의 실행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 IPA 분석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교차 분석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IPA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먼저 '계획수립', '강사교육'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아 경쟁우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도·관리'는 실행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아 개선영역으로 조사되었다.



Fig. 1. Education operation impor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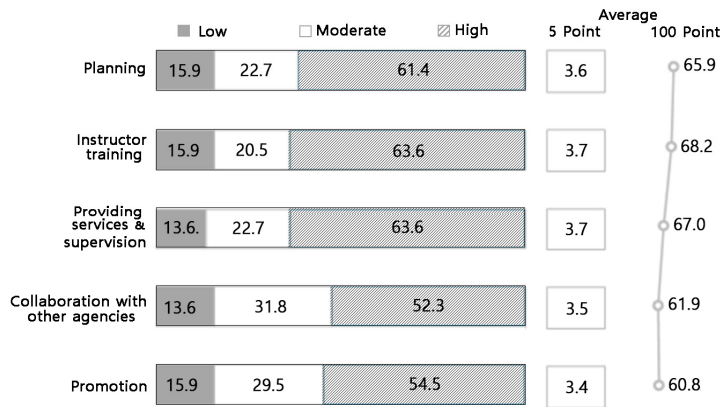


Fig. 2. Education operation execution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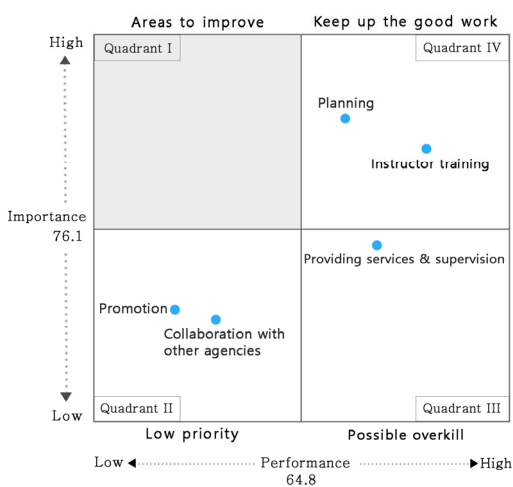


Fig. 3. IPA Analysis of Training Operation

초고령 사회에서 웰에이징 교육의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대상자도 홍보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3.4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 정도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는 ‘죽음 준비 교육(4.4점, 100점 평균 84.1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장례절차 및 행정(3.8점, 100점 평균 70.5점)’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스스로의 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의 죽음관(4.0점, 100점 평균 76.1점)’의 지식정도가 가장 높고, ‘호스피스·완화의료(3.5점, 100점 평균 63.6점)’의 지식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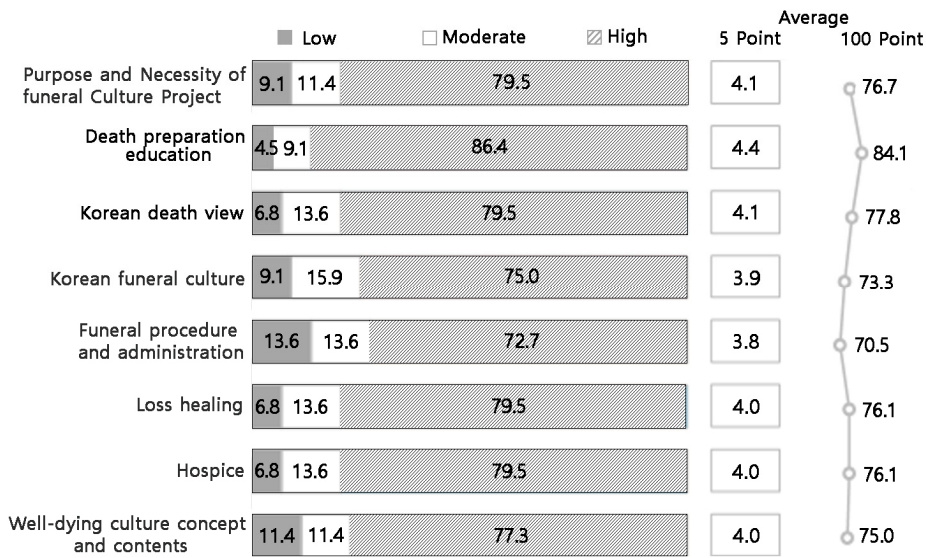


Fig. 4. Funeral Culture Education Item Impor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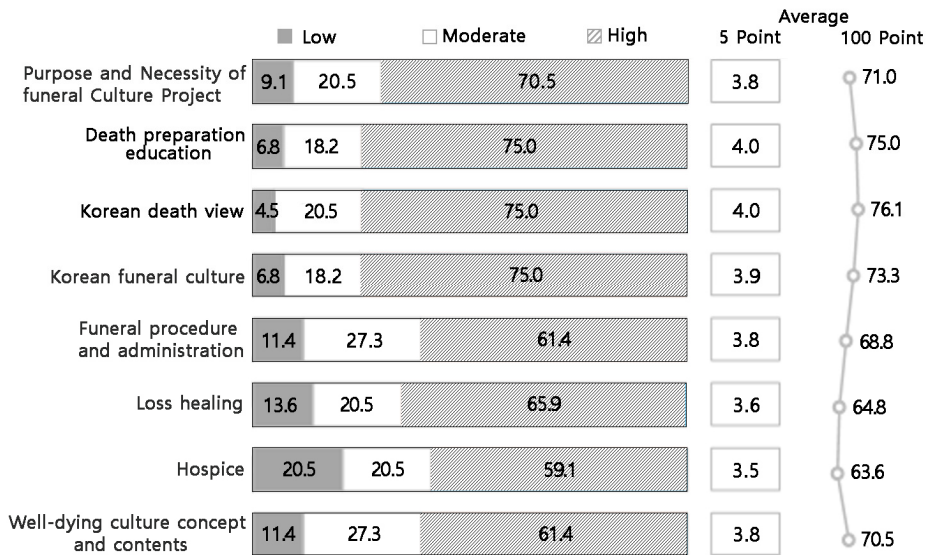


Fig. 5. Knowledge level of funeral culture education

3.5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지식 정도: IPA 분석

먼저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죽음 준비 교육’, ‘장례문화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인의 죽음관’은 중요도와 지식정도 모두 높아 경쟁우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상실치유’는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나 지식정도가 낮아 중점개선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장례문화’는 지식정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웰다잉 문화 운동의 개념과 내용’은 지식정도는 평균 수준이나 중요도가 낮아 우위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례절차 및 행정’은 중요도와 지식정도 모두 낮아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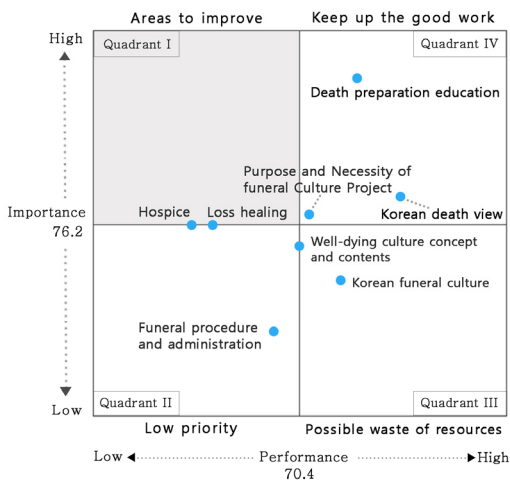


Fig. 6. IPA Analysis of Training Content

3.6 장례문화사업의 효과적 교육 방법, 적합한 교육 장소, 적정 교육시간

다음 중 “장례문화사업 교육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2순위까지 선택”에 대한 응답은 ‘교육기관 (45.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기관 (15.9%)’, ‘국가기관(1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례문화사업 교육 방법”은 1순위 기준 ‘강의+체험(54.5%)’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장 강의(29.5%)’, ‘교육자료 배부(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적정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22.7%)’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시간 이내(20.5%)’, ‘15시간 이내(20.5%)’ 등 이었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 구성 요소는 ‘교육 내용(52.3%)’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방법 및 형태(22.7%)’, ‘교육강사(15.9%)’, ‘교육시간 및 장소(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이 필요한 시기는 ‘장년기 (54.5%)’, ‘성인기(47.7%)’, ‘중년기(45.5%)’ 등의 순이었다.

4. 논의

본 연구 결과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설문 대상자들은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내용 지식의 중요도와 자신의 지식정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례문화사업 관련 웰에이징 교육 관련자들은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계획수립’과 ‘강사교육’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도는 강사교육과 지도관리 순으로 나타나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수립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인의 실행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 IPA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 시 각 항목별 중요도 및 실행도에서 ‘홍보’,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은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모두 낮아 개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계획수립과 강사교육은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웰에이징 교육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강사들의 수준, 그리고 교육생들의 관리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저변 확대와 효과를 위해 홍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웰에이징 교육 관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교육계획 및 운영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각 항목별 중요도는 ‘죽음준비교육’와 ‘한국인의 죽음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 설문대상자의 지식정도 역시 ‘한국인의 죽음관’, ‘죽음준비교육’으로 조사되어 중요도와 지식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항목별 IPA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장례문화사업에서 ‘장례절차 및 행정’은 중요도와 지식정도가 모두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상실치유’는 중요도에 비해 지식정도가 낮아 증점개선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본 설문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 교육 내용이 주로 한국인의 죽음관과 죽음준비라는 철학적, 인문사회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웰다잉 실천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상실치유’, ‘장례절차 및 행정’ 관련 내용은 현실적, 실무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 사회의 죽음문화와 관련된 웰다잉 교육의 담론과 시작은 주로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 담당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웰에이징 교육은 생주기별 웰에이징 실천차원에서 학문적인 접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죽음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첫째,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화장문화 운동의 시기이다.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화장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991년 17.8%였던 화장비율이 2005년 52.6%로 국민절반 이상이 화장을 했다. 급기야 2022년 7월 기준 91.5%로 사망자 10명중 9명이 화장을 한다.

다음으로는 웰다잉 담론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웰다잉 담론이 제기되었다. 웰다잉 담론은 기존의 장례방법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자는 장묘방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생전에 죽음준비를 통해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8,9).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웰다잉을 넘어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웰에이징 담론이 그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의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0세 시대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10]. 웰에이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문화사업은 화장문화 운동과 웰다잉을 뛰어 넘는 것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남은 자들에 대한 고려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웰에이징 차원에서 장례문화사업 교육운영과 실행의 중요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교육내용의 중요도와 지식정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의 교육운영 및 교육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IPA분석 결과는 개선영역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웰에이징 교육장소로 교육기관(45.5%), ‘지역기관(15.9%)’, ‘국가기관(1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 내용과 강사 교육

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웰에이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이 교육내용과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장례문화사업 교육 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 구성요소는 ‘교육 내용(52.3%)’, ‘교육방법 및 형태(22.7%)’, ‘교육강사(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IPA분석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상실치유’ 관련 교육에 대한 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가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은 온라인 보다는 현장 강의와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 본 설문조사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례문화사업 교육 방법” 1순위는 ‘강의+체험(54.5%)’이었고, 다음으로 ‘현장 강의(29.5%)’로 조사되었다.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은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부분으로 체험을 동반한 강의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웰에이징 장례문화사업 교육은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웰에이징 전문가들이 응답한 장례문화사업 교육이 필요한 시기는 ‘장년기(54.5%)’, ‘성인기(47.7%)’, ‘중년기(45.5%)’ 순으로 노년기(34.1%)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장례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은 주로 노년기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죽음과 죽음문화와 관련된 교육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교육처럼[12]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 과정에서 진행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통한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회복지 차원의 종활(終活, 슈카츠)사업[13]은 참고할 만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웰에이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사업 분야 교육운영에 필요한 항목 별 중요도와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웰에이징 교육모델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례문화사업 관련 웰에이징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운영과 방법, 내용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장례문화사업 관

련 교육내용이 인문사회계열 영역에 치중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 사례수가 많지 않아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의 교육운영과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본 논문과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사례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에서 담보할 수 없었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웰에이징 관련 장례문화사업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자와 교육대상자들 간의 간격을 좁혀나감으로써 장례문화사업 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H.S.Lee, S.H.Kwon, "Problems and Suggestions of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Super-aged Society," *The Journal of Labor Law*, no.50, pp.1-29, 2020.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18>

[2] J.H.Ku, H.N.Lim, D.R.Kim, K.H.Kang, S.H.Kim,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by Adult Life Cycle for Well-agi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257-269,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257>

[3] D.R.Kim, K.H.Kang, A.Park, C.H.Lee, K.H.Kim,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3, pp.190-19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3.190>

[4] H.D.Song, S.H.Kim, G.H.Kim, J.H.Ku,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funeral cultur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0, No.5, pp.671-680, 202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5.671>

[5] E.J.Jung, "Analysis of Well-dying Program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no.2, pp.189-194, 2012.
DOI: <http://dx.doi.org/10.16972/apjbe.7.2.201207.189>

[6] M.K.Byun, H.J.Hyun, S.J.Park, E.Y.Choi, "Efficacy of Well-dying Program for Meaning of life, Self-efficiency, and Successive ag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13-422,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13>

[7] Y.J.Suh, "Aged Society and Sociology of Death Education - A Critical Review of Death Education in Korea", *Society & Theory*, vol. 1 no.28, pp. 69-103, 2016.
DOI: <http://dx.doi.org/10.17209/st.2016.05.28.69>

[8] K.S.Hwang, H.J.Bae, Y.E.Choi, J.L.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funeral culture according to an aging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 no.1, pp.69-72, 2015.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5.1.1.69>

[9] P.D.Lee, H.W.Kim, "Awareness of Funeral Culture and Well-Ending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4, no.4, pp. 67-75, 2018.
DOI: <http://doi.org/10.17703/JCCT.2018.4.4.67>

[10] H.D.Song, M.J.Kim, G.YJo, K.H.Chang, K.H.Kim, "Convergence Study on Koreans' Recognition of Funeral Culture Industry and Develop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7, pp.113-123,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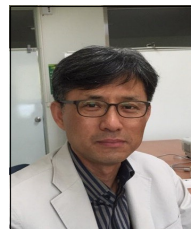
[11] D.R.Kim, Y.H.Park, S.Y.Ahn, H.H.Jeong, K.H.Kim, "Analysis of the meaning of 'well-aging' recognized by well-aging exper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5, pp. 61-67, 2022.
DOI: <http://doi.org/10.15207/JKCS.2022.13.05.061>

[12] M.J.Shim, "Analysis of Needs and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by Life Cycl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5, pp.3747-3762,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5.260>

[13] J.Y.Yang, "Perspectives of the Life-and-Death Studies on Syukatu in Jap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5, pp.1201-1214, 2018.
DOI: <http://doi.org/10.22143/HSS21.9.5.85>

송 현 등(Hyeon-Dong Song)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웰에이징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매, 노인, 삶의 질, 웰에이징

장 경 희(Kyung-Hee Cha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석사
- 2021년 8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 2021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문학예술치료, 웰에이징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1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